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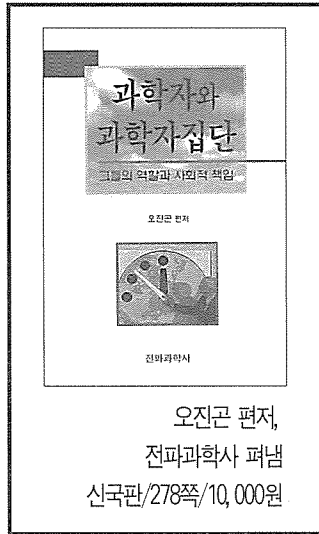
그들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영국의 물리학자 버널(J. D. Bernal)은 이미 1938년에 출판된 과학의 사회적 기능(The Social Function of Science)의 서문에서 과학과 그 응용이 실업이나 과잉생산을 몰고 왔고 전쟁을 더욱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과학이 건설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역할을 연출하고 있는 오늘날, 과학의 존립마저도 부정되고 있으므로 과학의 사회적 기능이 정밀하게 연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버널의 이러한 경고는 과학기술의 전성기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라 하겠다.

편저자가 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과학'이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과학자'들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과학자 집단' (국내 및 국제학회, 아카데미, 연구소, 과학자의 사회운동 단체까지도 포함)에 관해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과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바로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과학자 집단을 하나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 K. Merton)이다. 머튼은 1930년 무렵부터 과학자 집단과 그의 특유한 규범구조를 확정하고 연구업적의 생산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였는데 그 후 과학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과학자 집단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나 과학자 집단의 사회



오진곤 편저,
전파과학사 펴냄
신국판/278쪽/10,000원

적인 책임문제가 중요한 현실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핵무기 개발, 환경오염, 생물복제 등과 같은 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특정한 과학적 성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과학자나 과학자 집단은 과학적 성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충격을 줄 것인지 인식하고, 나아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은 과

학이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일찍부터 과학자 집단의 사회학적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오진곤박사는 이미 출판된 「과학과 사회」라는 편저서에서 과학 공동체, 과학과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깊이 있게 다룬 바 있다.

이 책은 1장 과학의 탄생과 과학자 집단의 출현, 2장 연구에서 과학자의 책임, 3장 사회에서 과학자의 책임, 4장 현대 사회에서 과학자의 위상 등을 다루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적인 직업인으로 인정받으며 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을 움직여 온 독특한 행동원리와 규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연구 성과를 놓고 현실의 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 또한 과학과 그 응용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동안 과학자와 과학자 집단의 사회적 위상은 어떻게 굴절되어 왔는지, 그들을 지탱해 온 이념과 사상, 날로 깊어만 가는 고민과 갈등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과학자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①7

朴澤奎(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관장)